

직능단체 의식집전교육 회향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8월 27일부터 4회에 걸쳐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실시한 서울·경기 직장직능단체 임원 의식집전교육을 5일 회향했다. 법회의식의 통일, 안정적인 법회 진행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법회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목적치는 방법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 50여명의 직장불자들이 동참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금강메아리 봉정사등 순례

서울불교신앙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1일 30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안동 봉정사와 지족암, 문경 김음사를 순례했다. 순례단으로 동참한 정산스님(양령 대륜사의 축원으로 봉정사에서 법회를 진행했다. 불교신앙인연합회 김대현 사무총장은 "불교문화자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유불동 부처님나라 수계법회

우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이사 이현중)'는 8월 25-26일 봉화 축서사에서 제6회 수계법회를 가졌다. 120여 회원들은 참회진언과 연비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계사로 나선 무어스님(축서사 조실)은 "계를 받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당한 마음으로 계를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n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02)722-4162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회 이일승(59·회계과) 씨는 매일 새벽 5시 20분 첫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향한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정비창내 법당. 이 씨는 청수를 새로 올리고 예불과 108배를 한다. 참여하는 사람은 없지만, 5년째 즐겨온 마음으로 하고 있다.

다보회 내에서 '법당 지킴이'로 통하는 이씨는 지난해 퇴직, 임시직으로 다시 취업했다. 업무도 관련이 있는데다가 법당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이씨는 법당을 청소하면서 오로지 회원들이 법당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직장내에 자체 법당을 갖고 있는 단체는 40여곳에 이른다. 법당중에는 지도법사가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상주하지는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당관리는 불자회원들의 몫이다. 문제는 직장생활을 하는 회원들이 법당에 돌보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일승 씨처럼 법당 청소와 불단에 공양을 올리는 일 등 법당의 크고 작은 일들을 남몰래 해오는 '법당 지킴이'들이 많다. 국회 정각선원, 경찰청 법당,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장 금강암 등에서 불자회원들이 법당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 김상희(66·위생

“우리는 ‘직장 법당 지킴이’”

이일승씨-정비창 내 법당 예불·108배 봉행
김상희씨-정각선원 개원후 매일 청수·공양물
경찰불교회-3개팀 순번제로 청소·법회 준비

과 씨는 95년 국회내에 정각선원이 개원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청수를 올리고 108배를 해왔다. 법회가 있는 날이면 청수와 쌀, 과일 등 갖가지 공양물을 올린다. 김 씨는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것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김경해 총무는 "부처님을 잘 모실 줄 알고, 회원들을 위해 법당 정돈과 법회 뒷정리까지 하는 김상희 보살님이야말로 참다운 보살"이라고 칭찬했다. 경찰청 불교회는 조직적으로 법당을 관리한다. 3개 팀으로 구성돼 순번제로 청수와 향 초를 바꾸고 청소, 법회 준비까지 담당하고 있다. 경복회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홍병선(45·과화수사과) 씨의 노력이 있었다. 홍 씨는 법회가 있는 날이면 먼저 법당에 들려 청수와 법회 준비를 했다. 남몰래 3년을 해오다 다른 회원들도 자츄츄츄 동참하기 시작했다. 인원이 점점 많아져 이제는 3팀으

로 나눠 운영하게 된 것이다.

경산조폐장 금강암의 경우는 지도법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기법회는 물론 특별법회도 주관하는 등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러나 법당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 역할을 주로 하는 회원은 박영경(33·조사2과) 씨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로 회향하는 박 씨는 매년 부처님 공양물을 준비해 회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주경수님은 "직장내 법당은 직장불자들의 신행·문화 기도공간이지만 일부는 법회 때 외에는 방치되다시피한 곳도 있다"며 "법당을 잘 관리하는 것도 불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집과 같은 공간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다보회 이일승씨는 매일 새벽 5시 20분에 출근, 예불을 올리는 등 '법당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는 경찰청 경승실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5일 헌관식을 가졌다.

경불회, 사무국강화...본격 포교

5일 헌관식, 경승단과 곧 관계정립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이하 경불회가 사무국 기능을 강화하고 미 창립 지부 설립 등 본격적인 경찰포교에 나선다.

경불회는 5일 경찰청 별관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경승단장 도영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관식을 가졌다.

이번 사무실 개소로 지부·지회와의 연락체계를 갖춘 경불회는 10월 12-13일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총무단 수련회를 열어 미흡한 조직체계 정비, 경승단과의 관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역조직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작

업도 돌입한다. 현재 10개 지방경찰청 68개 경찰서 지회를 거느리고 있는 경불회는 12월경 강원지방경찰청의 불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의 인선, 울산, 전북 등 3개 지방경찰청에 지부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부가 설립될 경우 경불회는 모든 지방경찰청에 지부조직을 갖게 된다. 또 창립되어 있으나 가입되지 않은 30여 지회의 가입도 함께 추진한다. 김진홍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각 경찰서 총무단을 중심으로 경찰포교 방안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봉은사서 정기총회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는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일부 임원진 개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잔잔한 불교음악으로 음반을 낸 바 있는 심진스님이 법문한다.

한편 세무사불자회는 국제청 보리회와 매일 갖기로 했던 합동법회를 자체법회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분기별 1회로 조정했다.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철야정진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27일 대구 팔공산 깃바위에서 철야정진을 갖는다. 27일 야간산행으로 깃바위에 올라 108배와 축원, 예불 등으로 진행되며,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운불련 안양운동장서 체육대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빈)는 29일 오전 10시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안양지역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800m 계주, 줄다리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등 6개 종목으로 지역회별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내달 자광원서 일일봉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택)는 10월 1일 노인복지시설인 성남북정동 자광원으로 일일봉사를 떠난다. 방 청소와 주변 정리 등 하루 동안 어르신들을 뒷바라지하게 될 법우회는 매년 가을 성지순례를 가져오다가 올해부터 봉사활동으로 전환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취지에서다. 회원들로 구성된 종로법과 국악인을 초청해 경로잔치도 마련한다.

법우회는 매년 복지시설을 찾아 일일봉사를 정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족들도 함께 동참시켜 가족애도 키운다.

“불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돼야”

박우락 회장



로 신행을 펼치는 것도 좋겠다 싶더군요.”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의 박우락(55·사진) 회장은 “조금만 눈을

둘리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들에게 불교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일 실시될 성남 자광원 1일 봉사도 박 회장의 이같은 생각에서 추진됐다.

박회장은 법회 때마다 가족이 함께 동참하도록 한 것은 물론 부인들의 모임인 승만부인회 활동을 적극 독려했다. 앞으로도 기존의 딱딱한 법회형식을 탈피,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정해 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보스님으로부터 ‘혜능’이라는 법명을 받은 박 회장은 가족 중심의 신행활동을 늘 강조해 오고 있다.

봉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창종공고** **축**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204-82-62512

第1章 宗名 및 宗旨

第1條 本宗은 대韓佛敎曹溪宗 三和佛敎이라 稱한다.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建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 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公稱하여 而後 그 宗脈이 緣緣 不絶조계종 삼화불교한 것이다..

第2條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見性成佛 傳法度生四分律을 宗旨로 한다.

第3條 本宗의 所以經典은 四分律金剛經과 傳法語로 한다. 其他 經典의 研究와 念佛持誦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고문변호사 **용태영**
회장변호사 **이정락**

장로원 **법종(法宗), 송산(松山), 왕천(王天), 혜경(慧京)**
송파(松坡), 법련(法蓮), 도일(道日)

을원장: **律山**

선원장 (방장): **월하(月下) 일허**

역경원 (학림원장): **법종(法宗) (교육, 포교)**

총무원장 **혜인(慧印) 기획실장 금당**

총회의장 **송산(松山)**

총무부장 **혜만(慧玃) 총무국장 법해**

기획부장 **동산(東山) 국장 혜심**

재무부장 **혜관(慧觀) 국장 대도**

교무부장 **법정(法眞) 국장 민광**

감찰원장 **법련(法蓮) 국장 태함**

사회부 **초산(草山) 국장 진호**

포교부장 **정산(正山) 국장 인혜**

원명(圓明)

서울총무원 동부-대도(大道)

서부-태합

경기도 동부-성관(成觀)

서부-법정(法眞)

강원도 성인(性印)

충청남도 보광(普光)

충청북도 동산(東山)

전라북도 정산(正山) 법성

전라남도 혜월(慧月)

경상북도 혜관

경상남도 무원(無圓) 혜명

제주도 효문남산

삼화불교대학	혜인	주간종교신문	법성
총무처	혜만	발행인	혜인
교학처	손영진	편집장	동산
학생처	정금옥	주간	김점주
조교	김점주	교정	조일
총무	조일	송달	삼주
		기자	현욱, 최훈, 성훈, 윤기순

총회의원

법종(法宗), 송산(松山), 왕천(王天), 혜명(慧命) 송파(松坡), 법련(法蓮), 혜인(慧印), 태합(太合) 무원(無圓), 행록(行錄), 도성(道性), 혜종(慧宗) 성관(成觀), 현성(現性), 봉선(奉先), 법정(法眞) 각원(覺圓), 혜은(慧恩), 혜관(慧觀), 현경(現京) 송광(松光), 월성(月性), 법련(法蓮), 금당(金堂) 남산(南山), 보광(普光), 무광(無光), 혜만(慧玃) 도월(道月), 성인(性仁), 도운(道雲), 인해(仁海) 명광(明光), 혜광(慧光), 혜명(慧命), 혜성(慧性) 삼화(三和), 법인, 성담, 덕산, 해각, 해원, 남산중산, 송산중비, 련성, 인공, 해인, 지산, 가산일광, 원각, 일화, 금화해천, 각원, 본각, 동산, 법성